

#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그 배경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gskim@hri.co.kr

## 1.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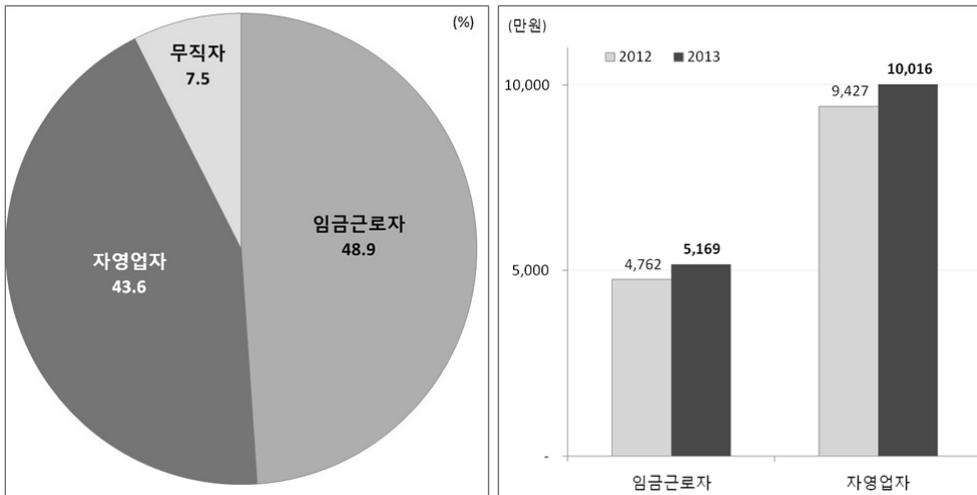
국내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규모는 명목GDP 대비 약 76%로, 세계 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 75%를 넘어서면서 빚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였다. 결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4년 103%에서 2012년 136%로 상승하여 국민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에게 있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총 금융대출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23.7%인 반면,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비중은 43.6%에 달한다([그림 1] 참조). 가구당 부채규모도 임금근

\* 저자 최근 연구: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2014),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2014) 등
- 1)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통계청의 경우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고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과 국회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를 정의하였다.

로가구의 약 두 배에 달한다. 2013년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0,016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매우 많은 상황이다([그림 2] 참조).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능력도 미약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그림 1]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비중(2013)

[그림 2] 종사상지위별 가구당 가계부채

## 2.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 배경

임금근로자 가구는 생활비 및 교육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채를 늘리지만, 자영업자 가구는 사업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에 의존한다. [표 1]을 보면,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31.1%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3.6%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를 확대시켰다. 특히, 고용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사업자금 마련(29.8%)을 위한 대출이, 자영업자 가구는 생활비 마련(33.2%)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2010년 6,570만원에서 2013년 7,257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사업자금 대출 확대의 한 요인이다([표 2] 참조). 특히 치킨집, 제과점, 호프집, 음식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sup>1)</sup>이 집중되어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창업비용이 2010년 7,540만원에서 2013년 9,234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였다. 편의점, 서점 등과 같은 소매업의 창업비용은 연평균 6.4%, 미용실, 네일아트 등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의 창업비용도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생활비 마련(35.7%), 교육비 마련(26.4%)을 위한 대출이 많다. 특히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이 20.9%로 자영업자 가구의 11.2%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창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 2012~2013년 가계부채 증가 원인 (%)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자	
부동산 구입	20.9	11.2	16.1	9.6
사업 자금	3.1	23.6	29.8	21.6
생활비	35.7	31.1	24.3	33.2
교육비	26.4	13.9	9.0	15.5
부채 상환	7.0	14.6	16.8	13.9
기타	6.8	5.7	3.9	6.2

[표 2]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 (만원, %)

산업구분	2010	2013	연평균 증감률
전체	6,570	7,257	3.4
제조업	6,808	7,245	2.1
전기/가스/건설업	9,139	6,849	-9.2
소매업	6,198	7,460	6.4
음식/숙박업	7,540	9,234	7.0
운수/통신업	4,265	4,874	4.5
부동산/임대업	4,892	4,704	-1.3
사업서비스업	6,726	7,202	2.3
교육서비스업	6,769	6,840	0.3
오락/문화/운동	9,765	10,932	3.8
개인서비스업	4,338	5,328	7.1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1) 경제활동과 밀접한 업종으로서 전국 사업자수가 최소 5,000개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자로 정의한다(국세청).

### 3.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와 채무상환능력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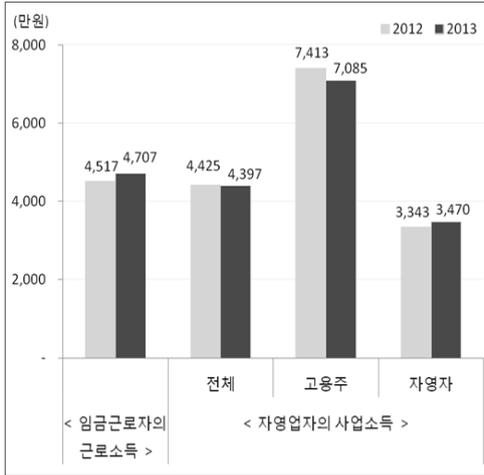
최근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사업소득이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했다([그림 3] 참조). 특히, 고용주 가구의 사업소득이 7,413만원에서 7,085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영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3,343만원에서 3,47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 소득감소의 원인은 주로 ‘경쟁과밀’이다. [그림 4]와 같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원인은 동종업종간의 경쟁(41.8%), 대형 및 온라인업체와의 경쟁(22.9%), 경기악화에 따른 고객감소(14.6%),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1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동종업종이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접형 자영업창업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퇴한 상당수의 베이비붐세대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과밀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은퇴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우리 경제가 고용창출력이 떨어져 베이비붐세대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지 못한 결과이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2년 713만명에서 2013년 70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자 규모는 212만명에서 217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50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후 자영업을 창업하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사업종의 자영업 과밀화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업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는 채무상환비율(DSR)<sup>1)</sup>도 31.5%에서 34.9%로 3.4%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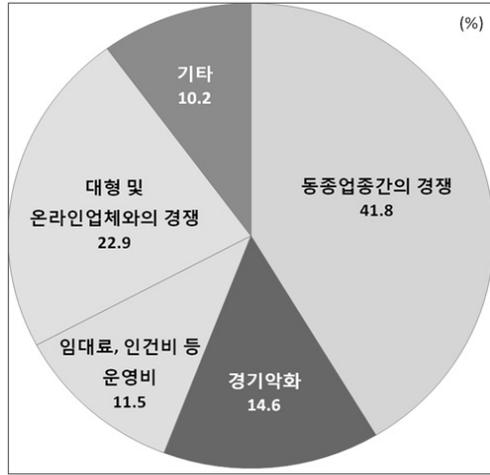
한편,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012년 4,517만원에서 2013년 4,70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가구는 중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상소득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은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도 높게 만든다.

1) 유량(flow) 측면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조달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개별 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생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한국은행은 ‘과다채무가구’로 정의한다.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그림 3] 중상상지위별 경상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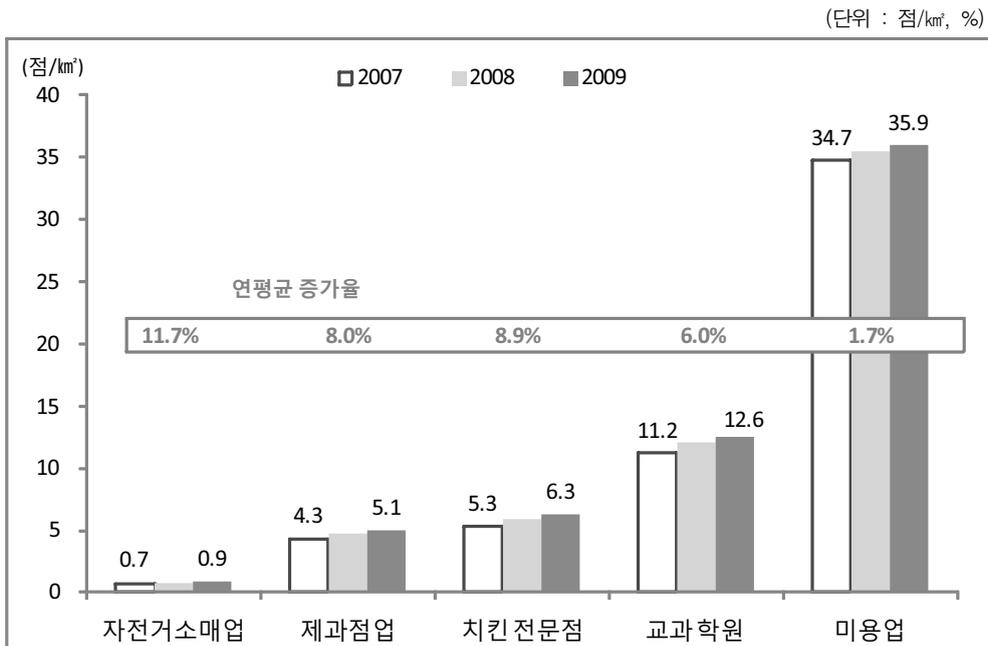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그림 4] 자영업 소득감소 원인

## 4. 서울시의 자영업 경쟁 과밀화

서울시는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서울시 미용실, 학원, 치킨점, 제과점 등의 생활밀접형 자영업체 1km<sup>2</sup>당 평균 5개 이상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미용실은 1km<sup>2</sup>당 평균 35.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 과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교과 학원, 치킨점, 제과점은 각각 1km<sup>2</sup>당 평균 12.6개, 6.3개, 5.1개의 점포들이 입점해 있고,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주요 자영업체들의 밀집도 추이와 연평균 증가율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1 : 증가율은 07-09 연평균 증가율을 가리킴  
 주2 : 서울시 면적은 605.33km<sup>2</sup>(서울시청)

[그림 5] 서울시 자영업 밀집도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세대가 음식점, 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업자 100명중 35명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으로 창업하고 있다. 생활밀접 업종의 창업자 수는 33만 명으로 전체 창업자 93만 명의 약 35.1%를 차지

한다.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자중 10만 1,000명(31.1%)이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그밖에 의류점, 부동산, 미용실, PC방이 주를 이룬다.

2009년 창업자중 약 26.2%(24만 2,000명)는 2007~2008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으로, 이 중 24%(5만 8,000명)가 음식점·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을 창업하였다.

서울시의 각 구별 최다 사업자 업종 현황을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주로 미용실, 편의점, 음식점, 호프집과 같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영업 창업자의 과반수가 2년 내 폐업하고 있다. 준비 없이 창업한 베이비부머세대는 과잉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열악하여 폐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밀집해 있는 업종에 추가적으로 진입하여,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가 47.6%를 차지했다. 50대는 은퇴 전 모아두었던 자금을 모두 창업비용에 쓰고, 폐업 후 회생이 어렵게 된다.

[표 3] 서울시 각 구별 최다 사업자 업종 현황

(단위 : 명)

자치구	업종	사업자수	자치구	업종	사업자수
강남구	미용실	959	송파구	예체능학원	579
	입시·보습학원	962		문구점	178
	화장품	736	중구	의류점	2,995
	세탁소	401		안경점	170
	인테리어	763	종로구	서점	120
	편의점	371	강서구	자동차수리	304
	음식점	6,978	영등포구	이발소	406
관악구	슈퍼마켓	240	마포구	호프집	1,110
	인터넷PC방	247	은평구	철물점	100
서초구	꽃가게	672	동대문구	과일가게	102
	가구점	106	광진구	통신기기판매	17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주1 :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2 : 전국평균 사업자수 = 업종별 전체 자영업자수 / 전국 시군구수(232)

## 5. 정책적 시사점

자영업자를 위한 제1의 정책은 ‘창업 지원’ 이 아닌 ‘(재)취업 지원’ 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은퇴한 50대는 종사했던 산업 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능력이 우리 경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취업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선택제 근로자 형태로 축소된 시간에 근로 하면서 후임 지도와 교육을 할 수 있다. 혹은 실업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실무전문가로서 해당 산업 내 직업교육 과정을 일임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과도 연계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 수 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된 창업자’ 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흔히 취업준비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창업 준비 3개월은 너무 짧지 않은가? 단순한 금융지원으로 끝나는 창업지원책은 은퇴한 50대를 폐업과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다. 업종 선택, 창업 방법, 경영 노하우, 서비스와 기술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취업을 유도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창업지원 교육이 보다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주로 교육내용이 창업기술에 있다. 거시적인 창업경제와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여, 창업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창업기술도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과 제빵기술, 미용기술, 네일아트 기술 등 이미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생활밀접형 자영업 업종에 추가적인 과밀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술도 고부가가치 있고, 과밀화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진입해 있는 자영업자도 신규 진입하는 자영업자도 모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OECD(2010), “Factbook.”
- 국회예산정책처(2011.9),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 김광석(2012.7),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자의 10대 문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2-27(통권 제 498호).
- 김광석(2014.2),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4-07(통권 제 578호).
- 김광석(2014.4),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4-14(통권 제 585호).